

2013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국 어

1차 시험	2 교시 (전공)	40 문항 80점	시험 시간 120 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항의 배점이 1.5점과 2.5점인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2점입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을 표시하십시오.

1. 다음은 교사가 언어 예절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교사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 (가) (회사원이 아버지와 자기 회사 사장을 소개하는 상황)
회사원: 사장님, 저희 아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 사장님이세요.
사장: 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한 제 딸 잘 부탁드립니다.
- (나) (담당 교사가 교장실에서 결재 받는 상황)
교장: 이 결재 서류 누가 작성했어요?
교사: 연구부장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다) (어머니가 해 준 음식을 먹고 느낌을 말하는 상황)
어머니: 해물 파전 부쳤다. 먹어 보라.
아들: (먹어 본 후) 오랜만에 어머니 해 주신 파전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거 같아요.
- (라) (회식 참여를 권하는 친구에게 거절하는 상황)
회사원 1: 오랜만에 갖는 회식인데 참석 안 할 거야?
회사원 2: 미안해. 오늘 우리 부인 생일이라서 저녁 같이 먹기로 약속을 했어.
- (마) (교회(古稀) 잔치에 초대 받아 인사하는 상황)
영희 아버지: 어르신, 교회 축하드립니다.
철수 할아버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 줘서 고마워요.

- ① (가):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자료>의 예처럼,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겹칠 경우 대체로 친소 관계, 상하 관계, 남녀 구별 순서로 적용해요. 이런 순서는 법처럼 엄격한 것이 아니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인사시킬 때 상대를 배려하려면 알아 두는 것이 좋겠지요.
- ② (나):윗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보다 낮은 윗사람을 높이지 않는 것을 ‘압존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말 공손 표현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압존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료>의 예처럼 ‘연구부장님이 작성하셨습니다.’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님’과 ‘-시-’를 붙여 높이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 ③ (다): ‘같다’는 ‘다르다’의 반대 개념이나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여요. 요즘 와서 ‘같다’ 표현이 점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같다’를 쓰지요. <자료>의 예처럼,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진술하는 내용 다음에 항상 ‘같다’를 붙여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아요.
- ④ (라): 친구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킬 때 ‘아내’, ‘집사람’, ‘안사람’, ‘애 엄마’, 아들이나 딸의 이름 뒤에 ‘누구 엄마’라고 지칭해요. <자료>의 예처럼, 자기 아내를 가리켜 ‘우리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夫人)’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므로 자기 아내를 가리킬 때는 ‘부인’이 아니라 ‘아내’, ‘집사람’, 또는 ‘애 엄마’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맞아요.
- ⑤ (마): 어른의 교회 잔치에 가서 당사자인 어른과 대면해서는 ‘교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에요. 최근 ‘축하드립니다.’라는 표현이 흔하게 쓰이면서 ‘축하드립니다.’가 ‘축하합니다.’보다 더 높은 존대의 뜻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축하드립니다.’와 ‘축하합니다.’ 모두 높임을 충분히 표현한 좋은 인사법이에요.

2. 밑줄 친 부분은 화자가 대화 과정에서 상대의 생각을 추론하여 발화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발화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후배: 이번에도 아들을 낳아서 좀 섭섭했어요.
선배: (이 친구가 이번에는 딸 낳기를 기대했구나.)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건강하면 돼.
- ② 시어머니: 어미야, 아빤 아직 퇴근 안 했니?
며느리: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기다리시는구나.) 어머님, 시장하시죠? 먼저 차려 드릴까요?
- ③ 손님: 여기 지금 좀 덥지 않아요?
점원: (더워서 지금 에어컨 켜기를 원하는구나.) 좀 덥죠? 에어컨 켜겠습니다.
- ④ 아버지: 지금 몇 시니?
딸: (아버지께서 내가 너무 늦어 화가 나셨구나.) 죄송해요. 일찍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⑤ 어머니: 벌써 일곱 시 지났다.
아들: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하겠구나.) 네, 지금 나가요.

3. (가), (나)의 조건들을 고려할 때 (다)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면서 조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상담 상황

- 학교 방송 기자가 특집 방송을 앞두고 선생님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상황
- 학생은 방송 기자이고, 방송 주제와 관련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일에 참여했음. 전교생 대상 생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해 하고 있음.

(나) 학생의 방송 계획

1. 주제: 아침 식사와 건강
2. 방송 형식: 대담
3. 방송 내용: 1) 학생들의 아침 식사 실태
2)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
3) 해결 방안

(다)

학생: 선생님, 저 다음 주 특집 방송이 걱정이 돼서 선생님 도움 받으려고 왔어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A **교사:** ‘아침 식사와 건강’으로 주제를 선정했는데,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해. 요즘 학생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다녀서 건강이 나빠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그리고 방송 내용을 실태, 이유, 해결 방안 순으로 한 것은 주제에 잘 맞는 효과적인 구성이라고 봐.

학생: 그럼, 대담 형식으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B **교사:** 일방적인 정보 전달인 뉴스 보도 형식으로 하지 않고 대담 형식으로 정한 것도 좋아. 학생들이 궁금해 할 것을 진행자가 묻도록 하고 네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답해 주면 친구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학생: 그렇겠네요. 진행 과정을 모두 문장으로 써 왔는데 한번 봐 주세요. 외울 정도로 혼자 연습했는데 어딘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C **교사:** 실제 방송에서는 상대와 맞춰 가며 상호 작용해야 하고, 듣는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말해야 하니까 문장으로 쓴 것을 그대로 하면 이상할 수 있지. 딱딱한 표현들을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바꾸면 좋겠어. 또 대담 이니까 진행자와 연습해서 호흡을 맞추고, 어조나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속도 등도 점검해 봐서 고치면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야.

학생: 선생님, 그런데 방송 날이 다가오니까 점점 불안해져요. 제가 식사와 건강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전교 학생들, 선생님들 다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D **교사:** 이번에 다루는 주제는 설문 조사부터 결과 분석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잖아. 그 주제에 대해서 너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학교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준비가 잘 되었는데도 긴장하고 불안해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을 예상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듣는 사람 모두 우리 학교 학생이고 선생님이니까 실수를 한다고 해도 뭐랄 사람은 없어.

학생: 네, 선생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E **교사:**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체계적 둔감화’라는 게 있는데, 이 방법은 불안증을 겪는 사람에게 실제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야. 너도 이번 생방송처럼 두려운 일을 여러 번 경험하면 앞으로 생방송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 다음 <말하기 평가 계획>에 대한 동료 교사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말하기 평가 계획> —

1. 학습 목표: 매체를 활용하여 주변 인물을 인상 깊게 소개한다.
2. 평가 방법
 - 1) 분석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 2) 학생의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를 실시한다.
 - 3) 교사의 관찰 평가도 동시에 진행한다.
 - 4) 말하기 평가 요소
 - 청자에게 알맞은 대상을 선정했는가?
 -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했는가?
 - 소개의 시작과 마무리를 인상 깊게 했는가?
 - 청자가 인상 깊게 기억하도록 어휘나 문장 선택에 주의를 기울였는가?
 - 소개 효과와 관계를 고려하면서 시선, 표정, 몸짓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 ① 분석적 평가는 학습자의 말하기 수행 능력 요소를 항목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는 말하기 능력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교사 평가와 학생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다.
- ④ 학습 목표에 나타난 주요 학습 내용인 매체 활용을 평가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⑤ 소개하기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평가 요소가 없다.

5. 작문 관점에 따른 독자관을 기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주의 관점에서는 글이 초점화되고, 필자와 독자의 이미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워진다. 글은 그 자체로 온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독자는 글의 의미를 수신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필자의 의미 구성 능력은 모범문의 모방에 있다는 관점에 설 때, 독자의 자리는 좁고 위상은 미미하다.
- ②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필자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독자에 대한 지식이 작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며, 독자를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해석자로 정의한다. 글의 의미는 글, 필자, 독자가 상호 작용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상황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③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독자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보며, 이때의 독자는 담화 공동체의 신념, 가치, 해석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필자는 작문 과정에서 작문의 내용, 구성, 표현 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과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의미를 구성한다.
- ④ 대화주의 관점에서 독자는 필자를 향해 말을 걸어오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작문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필자와 독자 간의 교호 작용을 ‘대화’로 설명하는 방식은 문어의 구어성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 서면 독자는 필자와 함께 공저자의 지위를 얻는다.
- ⑤ 수사학은 연설 장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논증 행위의 전 과정에서 독자(청중)를 중심에 놓는다. 모든 수사적 상황에는 독자가 있으며, 필자의 논증 행위의 성공 여부는 독자의 공감과 동의에 달려 있다. 필자가 예상 독자의 보편적 특성과 자질을 고려할 때, 더 넓고 강한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6. <자료>의 (나)는 (가)를 읽고,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쓰기 계획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교사가 작문 수업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작문 교육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료>

(가)

영어, 능동적으로 도입해야

배타적 민족주의는 열등의식의 발로이다. 만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것이라면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자신이 없으면 버려야 한다.

민족 문화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늘 바뀌고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결코 무국적의 보편주의자나 자유주의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자도 하는 얘기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수용하는가이다. 영어를 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사상과 체제를 보다 빠르고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영어를 국어와 함께 우리의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진정한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우리의 조상이 과거에 한자를 도입하였듯이 영어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결과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의 변형은 역시 한국의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된 한국 문화는 그만큼 보편화될 수 있다.

(나)

<쓰기 계획>

- 글의 유형: 글을 읽고 비판하는 글
- 예상 독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전체
- 개요
- I. 서론
 - 영어 공용어화를 둘러싼 논의 맥락 환기
 -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강조
- II. 본론
 1. 글 (가)에 대한 부분적인 동의, 비판, 그리고 지양
 - 1) 동의: 보편타당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 ↳ 비판: 영어 공용어화 주장은 특정 집단의 견해에 불과하다.
 - ↳ 지양: 영어 사용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 2) 동의: 영어로 표현된 한국 문화는 그만큼 보편화될 수 있다.
 - ↳ 비판: 인류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는 한국 문화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지양: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높은 수준에서 형상화하고 이를 영어 번역을 통해 세계화해야 한다.
 2. 글 (가)에 대한 비판
 - 1) 한자 도입은 문자가 없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2) ‘영어 공용어화 → 새로운 사상의 수용’은 논리 비약이다.
 3. 영어 공용어화를 비판하는 논거 수집, 제시
 - 1) _____
 - 2) _____
- III. 결론
 - 비판 내용의 정리
 - 논의 맥락 확대: 영어 공용어화보다 국어 교육의 내실화 강조

- ① 영어 공용어화와 관련된 논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고 학생 필자의 비평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의 주장을 지지하는 여러 읽기 자료를 제공한다.
- ② (가)에서 대립시키고 있는 핵심 개념은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이므로 이들 개념을 정교화, 구조화하기 위하여 의미 지도를 그리도록 한다.
- ③ ‘(나)-II-1’의 개요는 연역 논증의 하나인 생략 삼단 논법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논증 방식을 보이는 글을 찾아 읽도록 한다.
- ④ 영어 공용어화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집단 중 학생 필자와 입장이 같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해석 전략을 분석하여 ‘(나)-II-3’의 논거를 구성하도록 한다.
- ⑤ 초고를 쓴 다음에는 동료 평가 활동을 통해 학생 필자의 추론대로 읽지 않는 반응을 확인하고 이러한 반응을 배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글을 쓰도록 한다.

7. 다음 <작문 수행 평가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문 수행 평가 계획>

1. 성취 기준

[작문 영역]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문학 영역]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한다.

2. 수행 평가 세부 계획

가. 작문 과제
○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것 가운데 독자에게 깨달음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한 편의 글을 쓰시오.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쓸 것
• ‘자신의 경험 → 얻은 깨달음’의 구조로 내용을 전개할 것
• 자신의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할 것

나. 예시 답안 (‘상’ 수준)

중문 바다에는 당신과 나

사람이 없는 바닷가는 혼자 서서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서귀포에 머무는 동안, 나는 중문 해수욕장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바다 보다는 모래가 더 좋았습니다. 화강암과 현무암과 사암 같은 갖은 종류의 돌 부스러기가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예쁜 돌이 있으면 주워 가려고 모래만 바라보면서 걷다가 나는 깨달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모여 있군요.

당신과 나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개띠라든가, 혈액형이 A형이라든가, 막내라든가, 별자리가 양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 준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나는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이기적인 유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이 생긴 돌이 없듯이 같은 유형의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유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날, 서귀포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은 떨어져 금방 녹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폭설은 오랜만이라고 서귀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란 눈 구경하기 힘든 남쪽 지방에 내리는 폭설 같은 것. 누구도 삶의 날씨를 예보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당신과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잠시 가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아마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서로 멀리,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다. 채점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상 (10점)	중 (5점)	하 (1점)
내용 (20점)	주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사고	사고가 깊고 유연한가?			
구성 (20점)	단락 의식	단락은 사고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단락 전개	단락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표현 (20점)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는 정확한가?			
	어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합계		점			

라. 보고 방식: 총점

마. 채점 시 유의 사항

- 채점 전에 채점 기준을 공유하고 내면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한다.
- 국어 교사 3명이 채점하고, 총점은 합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단, 채점자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다시 채점한다.

- ① ‘작문 수행 평가 계획’은 국어과 평가에서 강조하는 직접 평가, 영역 통합 평가, 작문 기능 통합 평가, 채점자 간 신뢰도 확보 등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작문 과제’는 예상 독자, 시간, 분량 등 학습자의 답안 작성 시 조건과 교사의 채점 기준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예시 답안’은 ‘상’ 수준에는 부합하나 ‘중’과 ‘하’ 수준에 해당하는 예시 답안이 없어서 실제 평가 장면에서 예시 답안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 ④ ‘채점 기준’의 ‘평가 항목’별 ‘평가 요소’는 ‘성취 기준’, ‘작문 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문 능력을 구체화,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다.
- ⑤ ‘보고 방식’은 양적 정보 제공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 방식은 개별 학습자의 쓰기 능력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정확하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8. 쓰기 영역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 <수업 계획>이다. <수업 계획>에 대한 평가와 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취 기준>

-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보고하는 글을 쓰는 능력은 학교나 직업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고하는 글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하고, 제시되는 내용과 결과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술 방식 또한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 보고하는 글을 지도할 때는 쓰기 윤리 지키기 등도 강조하여 지도한다.

<수업 계획>

1. 학습 목표: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 교수·학습 모형: 작문 워크숍
3. 학습 집단 구성: 소집단
4. 교수·학습 절차
 - 1) 1단계: 간이 수업(미니 레슨)
 - 보고서 쓰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보고서의 목차: 연구 목적과 필요성, 방법, 결과
 - 보고서의 표현 방식: 명료성, 간결성
 - 2) 2단계: 협의하기
 - 주제 선정
 - 조사 방법 및 역할 분담
 - 보고서 구성 및 표현 방식
 - 3) 3단계: 쓰기
 - 4) 4단계: 타 교과와의 연계 활동 - 타 교과 보고서의 특성 (목차, 서술 방식 등) 파악
5. 수업 시 유의 사항
 - 1단계 간이 수업은 소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산출된 자료나 글을 수집하여 개인별 자료철을 만든다.

- ① 학습 활동이 주로 ‘지식’과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부합하게 작문 태도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추가한다.
- ② 작문 워크숍의 주요 학습 활동 가운데 하나인 ‘강화하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습한 작문 지식과 전략을 다른 작문 상황에 적용해 보게 하는 활동을 ‘4-3) 쓰기’ 뒤에 추가한다.
- ③ ‘협의하기’는 필요에 따라 작문 전, 중, 후에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하기’ 단계를 ‘4-3) 쓰기’ 앞 단계에 고정하지 말고, 작문 전체 과정에 걸치는 것으로 설정한다.
- ④ 보고서 쓰기가 주요 학습 장르인 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연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계 활동을 ‘1단계’ 또는 ‘2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 ⑤ ‘간이 수업’은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소집단이나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을 고려하여 수업 대상을 반 전체로 설정한다.

9. 다음은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현시적 교수법을 적용하여 구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현시적 교수법의 단계와 교수·학습 활동을 고려할 때, 밑줄 친 ㉠~㉣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학습 단계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설명하기	전체 학습	○ 배경 지식 활성화: 제재 글과 관련된 동영상을 본다. ○ 전략 소개: SQ3R 전략의 단계별 주요 활동을 설명한다. • 개관하기: 제목, 부제, 삽화, 그림, 표 등을 살펴보기 • 질문하기: 어떤 내용인지, 제목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하기 • ㉠ 읽기: 제기한 질문을 확인하며 훑어 읽기 • 되새기기: 중요한 내용을 다시 말해 보기 • 검토하기: 잘못 읽은 부분은 없는지, 제기한 질문이 타당한지 등을 점검하기
시범 보이기	전체 학습	○ ㉡ 시범 보이기: SQ3R를 적용하는 과정을 사고 구술법을 통해 보여 준다. ○ 전략을 이해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교사 유도 연습	모둠 학습	○ 학생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연습한다. ○ ㉢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 협동 학습	모둠 학습	○ SQ3R를 적용하여 제재 글을 읽는다. ○ 읽은 내용을 정리하여 친구들과 비교해 본다.
적용하기	개별 학습	○ SQ3R를 또 다른 글에 적용해 본다. ○ 학습 활동을 정리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 다음은 텍스트 이해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을 항목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각 항목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이론 항목	텍스트 중심 이론	독자 중심 이론	사회·문화 중심 이론
①	의미관	여러 가능한 의미	하나의 옳은 해석	의미의 맥락적 구성
②	텍스트	분석 대상	감상 대상	협의 대상
③	강조 요인	언어	심리	상황
④	지도 중점	꼼꼼히 읽기	적극적인 반응 격려	독서 토의
⑤	관련 이론	신비평	독자 반응 이론	사회 언어학

11. <자료>를 읽은 학생들의 해석과 반응에 대한 교사의 지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자 료>—

사람들은 진실 보도의 문제를 전적으로 보도 활동에 종사하는 기자의 양심이나 능력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기자가 높은 윤리 의식과 투철한 직업적 소명감을 갖고 있으면 진실 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실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모두 진실 보도의 문제를 전적으로 기자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진실 보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기자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신문 제작의 현실을 모르는 것에서 기인한다. 신문의 제작 과정을 보면, 특정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로 인해 사건을 보도할 때, 어느 특정한 측면을 특별히 부각하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가치에 서서 보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은 항상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나쁜 언론’으로 낙인찍혀 탄압 받기 일쑤이다. 양심적이고자 하는 기자나 신문이 때로 형극의 길과 고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의 해석과 반응	교사의 지도 내용
①	이 글을 요약하면, ‘진실 보도의 책임은 기자에게 있다. 기자는 양심을 지켜야 한다.’ 이겠군.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지도한다.
②	필자가 왜 진실 보도를 하는 기자나 신문이 탄압 받기 쉽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이 시대에 도대체 누가 기자를 억압한다는 거야?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생산된 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배경이나 언론 상황에 대해 조사해보도록 한다.
③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문장을 보면 이 글의 주제는 ‘진실 보도 여부는 기자의 취재 기술에 달려 있다.’인 것 같아.	특정 문장보다는 글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주제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④	‘고독의 길’ 부분에서 가슴이 찡했어. 그리고 ‘진실은 지금 외롭다. 그러나 내일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써서, 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심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나쁜 언론’이라고? 진실 보도는 옳은 건데 왜 옳지 않다고 하는 거지?	특정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그 표현이 사용된 전후 맥락이나 글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도한다.

12. 다음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라는 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구성한 학습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활동 1. 소득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 활동 2. <자료>를 읽고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의 내용을 예측해 보자.

—<자 료>—

과학 기술의 발전과 그것을 토대로 한 산업화는 인간성을 상실하는 문제를 낳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산업화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개성을 잃어버리게 했다.

글 구조 유형 :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열거

㉡ 활동 3.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를 읽어 보자.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 첫째 문단을 ‘소득 격차 심화 현상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 보자.

소득 격차 심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불황과 고용 사정의 악화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 기반이 무너진 탓이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내수 회복이나 서민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소득도 늘려야 한다. 세제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분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활동 4. 글 전체의 내용을 다음 그림을 활용하여 정리해 보자.

㉣

원인	→	결과

활동 5. 정리한 내용을 모둠별로 비교해 보자.

—<보 기>—

- (가) 위 학습 자료는 결과 중심 독서 지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읽기 후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독서 기능과 전략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다.
- (나) <자료>와 제시 글은 내용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은 제시 글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 (다) ㉡은 제시 글의 거시 구조에 대한 독자들의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제시 글에 대한 학생들의 독해력을 증진한다.
- (라) ㉢은 첫째 문단의 중요 정보에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심도 깊은 정보 처리를 유도한다.
- (마) 제시 글 전체는 ‘열거 구조’로 되어 있어 ㉣의 ‘원인·결과 구조’ 도해 조직자로 요약하기 어렵다.

- ① (가), (나) ② (다), (라) ③ (나), (다), (라)
- ④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마)

13. 다음은 국어의 음운 규칙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예시 자료로 옳은 것은?

음운 규칙	설 명	예시 자료
비음화	평파열음은 비음 앞에서 비음이 된다.	㉠
비음 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 말의 비음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평음이면 경음으로 바뀐다.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중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그중 하나는 탈락한다.	㉣

	㉠	㉡	㉣
①	국민[궁민]	보듬고[보듬꼬]	옳는[옴:는]
②	종로[종노]	앉자[안짜]	닿은[다른]
③	결단력[결판녀]	서슴지[서슴찌]	끓느냐[굼:느냐]
④	듣는[든는]	봄비[봄빼]	값어치[가버치]
⑤	밥만[밤만]	껴안다[껴안따]	싫어서[시러서]

14. (가)는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고 (나)는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실 발음이다. (가)와 (나)의 명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점]

표기	(가)	(나)
부엌이	[부어키]	[부어기]
부엌을	[부어클]	[부어글]
부엌도	[부억또]	[부억또]
부엌만	[부영만]	[부영만]

- 이형태의 수: (가)가 (나)보다 더 적다.
- 기저형: (가)는 유기음으로 끝나지만 (나)는 평음으로 끝난다.
- 교체의 동기: (가)는 자동적 교체를 보이지만 (나)는 비자동적 교체를 보인다.
- 적용된 음운 규칙: (가)는 비음운론적 제약이 필요하지만 (나)는 필요하지 않다.
- 교체의 규칙성: (가)는 규칙적 교체에 속하지만 (나)는 불규칙적 교체에 속한다.

15. (가)와 (나)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분류 기준에 따라 도표화한 것이다. (가)에서 (나)로의 변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舌不縮	舌小縮	舌縮		전설		후설	
[+口蹙]		ㄷ	ㄱ		평순	원순	평순	원순
[-口蹙, -口張]	ㅣ	ㅡ	·	고	ㅣ	ㄱ	ㅡ	ㄷ
[+口張]		ㅋ	ㅌ	중	ㅓ	ㅕ	ㅗ	ㅛ
				저	ㅕ		ㅏ	

- 입술 모양에 의해 대립하는 모음의 수가 더 늘어났다.
- ‘전설: 후설’의 이원적 대립이 모든 단모음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 입술 모양에 따라 ‘ㄱ’와 대립하는 모음이 ‘·’에서 ‘ㅌ’로 바뀌었다.
- 모음 조화에 참여하는 모음들의 대립이 모음 체계와 부합하게 되었다.
- ‘縮’에 의해 대립하던 ‘ㅡ’와 ‘ㅣ’가 ‘후설: 전설’의 대립을 보이게 되었다.

16.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수업 계획이다. ㉠~㉣ 중 학습 자료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1.5점]

	학습 내용	학습 자료
도입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제시하여 차이점을 생각하게 한다.	<활동지> ※ 다음 두 부류의 표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집집이, 잎사귀 ⇔ 지붕, 이파리
전개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을 표기 원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것이 한글 맞춤법의 세부 조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핀다.	“소리대로 적되”: 표음주의. 소리가 나는 그대로 적는 방식. 형태음소적 표기. “어법에 맞도록”: 표의주의. 형태를 밝혀 적는 방식. 음소적 표기. ㉠ - 표음주의를 반영하는 세부 조항 -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오빠, 으뜸 -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ㄷ’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좁쌀, 수캐 - 표의주의를 반영하는 세부 조항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입어, 입으니 -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전, 그게 ㉡
정리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평가지> ※ 다음 표기를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이유를 설명해 보자. 없애다, 싫증, 우습다, 끄트머리 ㉣

- ㉠, ㉡
- ㉠, ㉣
- ㉡, ㉣
- ㉡, ㉣
- ㉣, ㉣

21. 다음은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 ‘-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 자료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설명
㉠	그 ^ㄷ 恒 菩薩 比丘ㅣ 일후미 常不輕 ^{이러} 라 <월인석보>	‘-더-’는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교체를 보인다.
㉡	네 이 念을 뒷 ^던 다 아니 뒷 ^던 다 對答호스 ^{보다} 實로 뒷 ^다 이다 <월인석보>	‘-더-’는 1인칭 평서문과 2인칭 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	이 꾸의 因緣은 네 장츠 부터 드웁 相이로다 善慧 듣좁고 갖거 ^호 더시다 <월인석보>	‘-더-’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심리 형용사 구문에 사용될 수 있다.
㉣	須達이 보니 여섯 哈 ^래 宮殿이 식 ^하 더라 <석보상절>	‘-더-’는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진술하는 문장에 사용될 수 있다.
㉤	내 아드리 지비 잇 ^던 던 輪王이 드외리러니 出家호야 恒 일도 몰 일우도다 <월인석보>	‘-더-’는 과거의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문장에 사용될 수 있다.

22. 다음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다른 것은?

廣熾는 <u>너비</u> 光明이 비취닷 쁘디오 <월인석보>	
㉠ 三 ^明 은 세 가짓 불기 아 ^르 샤미니 <월인석보>	
㉡ 옷 밧고 北戶를 열오 노 ^피 베크 베크 <두시언해>	
㉢ 늘근 모매 넷 더 ^레 브 ^르 미 물기 부 ^눅 다 <두시언해>	
㉣ 羅睺阿脩羅王은 本來入 몹 기 ^리 七百 由旬이오 <석보상절>	
㉤ 벼슬 노품과 키 가 ^스 며롭과 식스기 勇猛 ^호 과 <능엄경언해>	

23. 다음은 단어 내적 구조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대 국어사전에 제시된 어원 정보를 찾아본 결과이다. 단어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눌 때 중세 국어에서 ㉠과 ㉡의 단어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은?

(가) ㉠ 아깝다 【<앗깝다<석보상절>←앗기+-알-】 ㉡ 그림다 【그림다<월인천강지곡>←그리+-봉-】
(나) ㉠ 아뢰다 【<<알외다<용비어천가>←알+-오+-이-】 ㉡ 여쭙다 【<연쭙다<석보상절>←열+-줄-】
(다) ㉠ 다니다 【<드니다<돈니다<돌니다<용비어천가>←돌+-나-】 ㉡ 만나다 【<맛나다<석보상절>/맛나다<월인천강지곡>←맛+-나-】
(라) ㉠ 키우다 【<키우다<신증유합>←크+-이+-우-】 ㉡ 기르다 【기르다<석보상절>←갈+-으-/기르다<석보상절>←갈+-으-】
(마) ㉠ 주검 【주검<석보상절>←죽+-엄】 ㉡ 꾸지람 【<꾸지람/꾸지럼<구지람<월인석보>←구질+-엄/구지럼<석보상절>←구질+-엄】

- ㉠ (가) ㉡ (나) ㉢ (다) ㉣ (라) ㉤ (마)

24. 다음 중세 국어 자료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2.5점]

그^ㄷ 善慧 부텃기 가아 出家호샤 世尊入기 슬^벗샤디 내 어저^피 다^스 가^짓 꾸^물 꾸^우니 恒나^호 바^르래 누^보며 둘^흔 須彌山을 베^며 세^호 衆生^들히 내 몸 안^해 들^며 네^호 소^내 희^를 자^비며 다^스슨 소^내 드^를 자^보니 世尊하 날 爲^호야 니^르쇼셔 <월인석보>
㉠ ‘出家호샤’와 ‘니르쇼셔’에서 ‘-시-’와 ‘-쇼셔’가 높이는 인물은 동일하다. ㉡ ‘世尊入기’와 ‘世尊하’에 포함된 조사는 높임 등급상 각각 다른 형태와 대립을 이룬다. ㉢ ‘내 어저피’와 ‘내 몸’에서 보이는 ‘내’의 문장 성분은 동일하다. ㉣ ‘꾸우니’와 ‘자보니’에서 ‘-니’에 선행하는 ‘-우-’와 ‘-오-’는 기능이 다른 형태소이다. ㉤ ‘세호’, ‘안해’에 나타나는 ‘호’는 형태론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25. “『정과정(鄭瓜亭)』의 심미적·문학사적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교수·학습 계획을 세웠다. (가)~(마) 중 교수·학습 내용에 따른 활동과 보충 자료가 모두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前腔	내 님플 그리스와 우니다니
中腔	산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後腔	아니시며 거즈르신들 아으
附葉	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大葉	넉시라도 님은 흐터 녀저라 아으
附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過도 허물도 천만 업소이다
三葉	물헛마리신더
四葉	슬웃븐더 아으
附葉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보충 자료
(가)	시적 화자 특성 확인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가 자성의 심경을 고백함을 확인하고, 같은 특성의 화자가 나타나는 경우와 비교함.	조위, 「만분가(萬憤歌)」
(나)	시적 대상 특성 확인	시적 대상인 ‘임’이 화자에게 관념적으로 절대화된 존재임을 확인하고, 같은 특성의 대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비교함.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다)	시적 공간 특성 이해	노래하는 장소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핍된 공간임을 이해하고,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와 비교함.	황진이, 「동짓달 지나긴 밤」
(라)	양식 특성 이해	‘아으’가 시상 전개에 단락화 또는 분장의 표지 기능을 지님을 이해하고,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 경우와 비교함.	작자 미상, 「동동(動動)」
(마)	전승적 가치 이해	눈앞의 현실 너머로 초월하려는 욕망이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적 모티프임을 확인하고, 유사한 경우와 비교함.	서정주, 「추천사(鞦韆詞)」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26. 「장진주사(將進酒辭)」에 나타나는 상호 텍스트 현상과 문학적 창조성을 이해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가) 흐 蕭 먹새그려 쏘 흐 蕭 먹새그려 곳 것거 算 노코¹ 無盡 無盡 먹새그려

이 몸 주근 後에 지게 우회 거적 더퍼 주리혀² 밋여 가나 流蘇 寶帳³에 萬人이 우러 네나 어옥새 속새 덩가나무⁴ 白楊 수페 가기곳 가면 누른 히 흰 돌 ㄴ는 비 굴근 눈 쇼쇼리⁵ 브람 불 제 ㉠ 뉘 흐 蕭 먹자 홀고

흐믈며 무덤 우회 진나비 프람 불 제 뉘우즌들 엇지리

1. 곳 것거 산 노코: 마실 때마다 꽃가지를 꺾어 잔의 수를 헤아림.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상춘곡』)
2. 주리혀: 거두어. 기본형은 ‘주리혀다(收)’.
3. 유소 보장: 여기서는 유소와 보장으로 꾸민 상여를 가리킴.
4. 덩가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櫟 덩갈나모 룩” (『훈몽자회』)
5. 쇼쇼리: ‘쇼쇼(蕭蕭)히’의 오기. “蕭蕭흐 白楊나뭇 길헤 蕭蕭白楊路” (『두시언해』)

(나) 아래의 한시는 석주 권필이 송강의 옛집을 지나며 감회를 읊은 것이다.

空山木落雨蕭蕭 빈 산에 낙엽 위로 쓸쓸히 비 내리는데
 相國風流此寂寥 상국의 풍류도 이제는 적막하구나
 ㉡ 惆悵一杯難更進 슬프다 한 잔 술 다시 권하기 어려워라
 昔年歌曲卽今朝 지난날의 노래는 이것을 말함일레

「장진주사」는 송강의 작품인데, 이백이나 이하의 「장진주(將進酒)」에서 술을 권하는 뜻을 본뜨고, 두보의 「견흥(遣興)」, 5수 가운데 “삼베옷 입은 이들 많이도 좇는구나, 그대여 죽은 뒤에 엮어매어 가는 것을 보게나(總麻百夫行 君看束縛去)”와 같은 구절을 취해 표현하여, 작품의 주제가 두루 통하면서도 시어 하나하나가 구슬프고도 한스럽다.

- ① (가)의 제1단에서는 ‘먹새그려’를 A-A-B-A의 민요적인 구조로 반복하고 선행하는 가사 작품의 표현도 인용하였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술 먹기를 권하는 뜻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우리말 표현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② (가)의 제2단에서는 두보의 시구 ‘蕭蕭白楊路(蕭蕭흐 白楊나뭇 길헤)’를 부연 확장하여 ‘백양 숲’과 ‘바람’ 앞에 각각 같은 정서를 환기하는 사물들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상호 텍스트적 확장은 시적 의미를 강화하였다.
- ③ (가)에서 제1단과 제2단의 정서는 ‘술로써 얻는 삶의 환희’와 ‘실존적 한계인 죽음’으로 대비되었다. 그리고 두 상황 사이에서 점층적으로 고조된 화자의 내면은 빠르게 진행되는 제2단의 시적 호흡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 ④ (나)는 (가)에 나타난 떠들썩함과 적막함의 양가적 정서 대비가 일정한 선행 텍스트들을 수용한 결과임을 말하였다. 또한 (가)가 대비적인 정서를 대립적인 시적 구조로 형상화함으로써 비장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도 말하였다.
- ⑤ ㉡은 ㉠에 대한 후대인의 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나)에 인용된 한시는 (가)에서 창조한 새로운 정서와 미적 효과에 대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공감했던 한 사례이다.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龔巖에 올라 보니 老眼이 猶明 | 로다
人事이 變호들 山川이 쏜 가실가
巖前에 某水某丘이 어제 본 듯호예라

(나) 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밤중만 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호노라

(다) 청산은 은은호고 벽계수(碧溪水) 돌렀는디
운니촌(雲離村) 피 밋 ㅁ을 일흠도 ㅆ홀시고
산가(山家)의 손이 업서 개와 ㄷ뿐이로라
귀오리 데친 밥의 ㅍ느믈 술마 내어
포단(蒲團) ㅍ 안쳐 노코 슬토록 권호스다
어와 이 ㅅ성들 ㅅ특(奇特)도 호저이고
(중략)
밀거니 ㄸ리거니 ㅅ ㄸ르며 나간 말이
별이(別異)실 외썬 ㅁ을 ㅎ는 어이 쉬 넘거니
봉당(封堂)의 자리 보아 더 새고 가자스라
밤들만 사립 ㅅㅅ기 ㅅ ㅅ람 니러나며
ㅅㅅ기 ㅅ ㅅ 호랑이 ㅅ ㅅ라 우는 소리
산물의 울혀이서 ㅅ염(氣焰)도 호난호샤

27. 고전 시가의 역사적 전개를 고려할 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 (다)는 국토에 대한 관심과 여행의 열망이 확산되고 이를 대리 충족시켜 주려 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지어진 시기의 작품들이다.
- ② (가)의 ‘산천’은 채도론(載道論)의 문학관이 구현되는 공간인 반면, (나)의 ‘산촌’은 천기론(天機論)의 문학관이 구현되는 공간이다.
- ③ (가)의 화자는 ‘산천’ 속에서 바라보는 경치에 대해 관념화하여 그려 내고 있는 반면, (다)의 화자는 ‘산골’ 속에서 직접 겪는 낮선 일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작자는 진퇴(進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사대부 집단에 속한 반면, (다)의 작자는 환로(宦路) 자체가 막혀 있던 사대부 집단에 속하였다.
- ⑤ (가)와 (나)는 산수 자연에 대한 거리감을 독백의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반면, (다)는 산수 자연에 대한 일체감을 전언(傳言)의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28. “작품에 나타난 표현 특성을 이해하고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라 (가)~(다)를 읽고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 ‘표현 특성’과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표현 특성은 한 작품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작품에서 나타날 수도 있음.) [1.5점]

	표현 특성	글쓰기 계획
①	청유형의 대화 형식을 통하여 청자와의 정서적 거리를 축소하였다.	설득력 있는 선언문
②	1인칭 화자의 말과 행동을 서술함으로써 경험을 실감 나게 형상화하였다.	여행 모티프의 소설
③	서로 다른 성질의 사물을 나열하여 목격할 일을 요약 제시하였다.	율문 형식의 기행시
④	익숙한 율격과 3단 구성의 형식을 통하여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였다.	3행시 형식의 광고 카피
⑤	연결 어미 ‘-니’를 사용하여 인과성을 갖추면서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였다.	인과 구조의 표어

29. “다른 문학 양식의 작품과 『국선생전』을 대비하여 가전 문학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모듈별 탐구 활동을 하였다. 탐구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결과로 적절한 것은?

	탐구 주제	관련 자료	탐구 결과
①	작가	『신도가』	『국선생전』이 고려 후기 신흥 사대부에 의해 지어졌다면, 『신도가』는 조선 전기 관료 문인에 의해 지어졌다.
②	입전 대상	『마장전』	『국선생전』이 의인화된 술을 주인공으로 하였다면, 『마장전』은 당시 실존하였던 말 거간꾼을 주인공으로 하였다.
③	창작 의도	『설공찬전』	『국선생전』이 인물의 허구적 행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풍자하였다면, 『설공찬전』은 인물의 사실적 행적을 통해 교훈을 주고자 하였다.
④	표현의 특징	『속미인곡』	『국선생전』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대상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면, 『속미인곡』은 내면 심리를 1인칭 화자 시점의 독백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⑤	장르 규정	『토끼전』	『국선생전』이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보여 준다면, 『토끼전』은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보여 준다.

[30~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송도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낙타교 옆에 살았다. 나이는 열여덟, 풍모가 맑고도 말쑥하였으며, 타고난 재주가 대단히 뛰어났다. 그는 국학에 다니면서 길가에서 시를 읽고는 하였다.

그때 선죽리의 명문가에 최 씨 처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15, 6세쯤 되었다. 그녀는 자태가 아리따웠고, 자수를 잘하였다. 게다가 시문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두고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풍류남아 이 도령	風流李氏子
요조숙녀 최 낭자	窈窕崔家娘
그 재주 그 모습, 듣기만 해도	才色若加餐
주린 창자를 배불리시오.	可以療飢腸

이생은 책을 옆에 끼고 학교에 갈 때 항상 최 씨의 집을 지나쳐 다녔다. 북쪽 담 밖에는 버드나무 수십 그루가 빙 둘러 줄지어 있어, 수양버들의 가지가 간드러지게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생은 그 나무 아래서 쉬고는 하였다.

어느 날 이생은 ㉡ 담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이름난 꽃들이 만발하였고 벌과 새들이 다투어 재잘거리고 있었다. 담장 곁에는 작은 누각이 꽃떨기 사이로 은은히 비치는데, 주렴이 반쯤 내려져 있고 비단 휘장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거기에 한 미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수를 하다가 조금 지쳐서 바늘을 잠시 멈추고 있는 참이었다. 미인은 턱을 괴고서 이런 시를 읊었다.

홀로 김창 가에 수놓는 손길 더디나니	獨倚紗窓刺繡遲
만발한 꽃떨기 속에 피꼬리 울음 곱기에.	百花叢裏囀黃鸝
팬스레 봄바람을 가만히 원망하여	無端暗結東風怨
바늘 멈추고 묵묵히 님 생각을 한다오.	不語停針有所思

㉢ 길 가는 저 이는 어느 댁 서생이신지 路上誰家白面郎
푸른 깃에 너른 띠 버들 사이에 어른거리네. 靑衿大帶映垂楊
어떡하면 대청 안 제비가 되어 何方可化堂中燕
나지막히 주렴을 스치곤 담장 위로 비껴 넘으랴. 低掠珠簾斜度牆

(나) 하루는 부인이 한 꿈을 꾸었는데, 오색구름이 영롱하고 하늘 위에서 한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말하기를,

“㉣ 나는 청룡을 다스리는 선관이었는데, 익성(翼星)이 무도한 까닭에 상제께 아뢰어 익성의 죄를 다스려 다른 방(方)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익성이 이것에 불만을 품어 백옥루에서 잔치를 벌일 때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제께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 갈 곳을 모르다가 남악산 신령이 부인 댁으로 가라 지시하기에 왔사오니, 부인은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색구름 사이에 놓아주며 말하기를,

“이 다음 속세에서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더니 부인의 품속으로 달려들었다. 부인이 놀라 깨어나니 한 바탕의 황홀한 꿈이었다.

(중략)

이때 천자가 정월 대보름날에 호산대에 올라가서 보름달을 즐기고, 궁궐로 돌아와 잔치를 크게 베풀어 상하가 함께 즐기고 있는데 뜻밖에 진남관 수문장이 장계를 올렸다. 급히 뜯어서 읽어 보니,

“㉤ 남적이 강성하여 오국과 힘을 합쳐 진남관 백 리 안에 가득하고 백성을 노략하여 황성을 치려고 하니, 바빠 군대를 보내어 도적을 막으소서.”

하였거늘, 천자가 크게 놀라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의논을 하였다. 이때 정한담과 최일귀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 급히 별당으로 들어가 도사에게, 밖에 도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고 대사(大事)를 물었다.

30. 작품 전체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사가 전개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작품에 현실성을 부여한다.
- ② ㉡: 최랑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애정 실현의 시발점이 된다.
- ③ ㉢: 이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며, 이생과의 사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한다.
- ④ ㉣: 적당 화소를 활용하여 유충렬과 정한담의 갈등이 극심할 것임을 암시한다.
- ⑤ ㉤: 정한담과 최일귀가 공을 세워 유충렬이 일시적 시련을 겪는 원인이 된다.

31. <보기>는 고전 소설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가)와 (나)를 설명한 것이다. 작품 전체를 고려할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에서 전란은 주인공의 지향 가치를 성취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면, (나)에서는 주인공의 지향 가치를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 ㄴ. (가)의 명혼(冥婚) 모티프는 「수삼석남」 등 이른 시기 서사 문학에 등장하며, 이후 「구운몽」과 「심생전」 등에 변형된 형태로 활용되었다.
- ㄷ. (가)에서는 문예에 조예가 있는 남녀의 애정 결합과 비극적 이별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후 애정류 전기 소설인 「주생전」과 「운영전」에 계승되었다.
- ㄹ. (나)에서 주인공이 어린 소년으로서 부친의 정쟁을 물려받아 대리전을 수행하는 내용은 「조웅전」에도 나타났다.
- ㅁ. (나)에서는 천상적 대립이 지상적 대립으로 연장되는 대립 구조의 이원성이 보이는데, 이는 「주몽신화」에서 시작되어 「홍길동전」에서 정착되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2. <자료>는 조선 후기 서적의 유통 방식을 보여 주는 글이다.
<자료>에서 제시한 방식의 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가) 내가 성남의 직려(直廬)에 우거하고 있을 때에 긴긴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웃이 꽤관 언서를 많이 갖고 있다기에 서너 종류를 빌려 와서 다른 사람을 시켜 읽게 하고 그것을 들었다. - 서유영, 『육미당기 소서』 -

(나) (조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비록 책은 없지만 예를 들면 아무개가 어떠한 책들을 몇 해 동안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책의 몇 권은 내가 판 것이지. 난 글의 뜻은 모르지만 어떤 책은 누가 지었으며, 누가 주석을 내었고, 몇 질 몇 책인지는 흰하대오. 그러니 천하의 책은 다 내 것이지요.” - 조수삼, 『추재집』 -

(다) 많은 세책가들이 있어 특히 소설이나 노래 같은 일반 책들을 소지하고 있는데 거의 한글판 인본(印本)이나 사본(寫本)이다. 이곳에 있는 책들은 보다 잘 간수되었고 책방에서 파는 것보다 양질의 종이에 인쇄되었다. - 모리스 꾸랑, 『한국서지』 -

- ① (가)와는 달리 (나)에서 책은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 ② (가)와 (다)의 이용자는 주로 남성이었다.
- ③ (나)의 조생과 같은 사람은 (다)의 세책가보다 책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 ④ (가)가 전국적으로 행해졌다면, (나)와 (다)는 서울에서만 행해졌다.
- ⑤ (가), (나), (다)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33. “인물의 말이나 행동, 지시문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시나리오의 특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려고 한다. ㉠~㉥에 대한 교사의 지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89 염전 주막 안

㉠ S#90 INS.
(어스름에 잠긴 염전 전경)

S#91 염전 주막 방 안
(천가가 문을 열어 주면 송화가 방으로 들어가 앉는다.)
(동호, 송화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천가, 문을 닫는다.)
(송화의 B. S.)
동호: 소리를 좇아 남도 천지 안 돌아본 데가 없는 위인이오. 소리만 있어 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라도 새우겠소.
송화: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리요.
동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시오.
(송화, 자세를 고쳐 앉는다.)

동호: (북을 앞으로 잡아끌며) 북을 잡아 본 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는지 모르겠소.
(동호, 북을 둥둥 친다.)
송화: ㉡ (소리) 그때의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울라고/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만경창과를 떠날 적에/북을 두리둥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둥둥/여보시오 심 낭자 물때 늦어 가니/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중략)

동호: ㉢ (북을 치며) 어이
송화: 행화는 풍랑을 쫓고
(동호임을 알아채고 동호 쪽을 보는 송화)
(두 사람의 부감)
송화: 명월은 해운에 잠겼구나.
㉣ (시선을 거두는 송화)

S#96 염전 주막 안
천가: 어쩐지 심상치 않다라니. 헌디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 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송화: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천가: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게 맺혔간디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여?
송화: 우리는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천가: 어떻게?
송화: 제 소리하고 동생의 북으로요.
천가: 어쩐지 임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만은…….
(버스 소리 들려온다.)

S#99 갈대밭
㉤ (여자 아이의 손에 이끌려 가는 송화)
(떨어져 가는 송화와 여자 아이)
(타이틀 오른다.)

- ① ㉠: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삽입되어 공간의 이동을 보여 주는 영화의 특징적 기법과 관련됨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② ㉡: 시나리오상의 판소리 사설은 영화화 과정에서 다양한 영상 기법, 음악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입체화됨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③ ㉢: S#91의 첫 번째 북 치는 행위가 송화와 재회에 대한 동호의 반응으로서의 의미인 반면, ㉣은 송화와 일체감을 회복하였다는 의미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④ ㉤: 장님 송화가 동생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행위는 한(恨), 예술, 운명 등에 대한 송화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표지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⑤ ㉥: 시나리오의 결말부를 떨어져 가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설정한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의 미래를 상상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34~35]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닳새 왔으면 좋지.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가도 왕십리(往十里) 비가 오네.

웬걸, 저 새야
올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울어나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가 운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
비가 와도 한 닳새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빠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34. (가), (나)를 제재로 하여 현대시의 특징을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교사가 중점을 두어 지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일정한 음보에 의한 정형적 율격이, (나)에는 화자의 개성적 호흡에 의거한 율격이 나타남을 비교하여 현대시의 운율적 특징을 인식하도록 한다.
- ② (가)의 비애와 상실감에 젖은 어조, (나)의 걱정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를 통해, 시의 주제 의식이 시적 자아의 목소리에 의해서도 구현됨을 주지시킨다.

- ③ (가)의 ‘천안에~늘어졌다네.’나 (나)의 ‘밤하늘에~울리오리다.’에서와 같이 익숙한 내용을 표현하여 상황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④ (가), (나)에서 ‘비’나 ‘울음’, ‘소리’ 등 시적 소재가 환기하는 감각적 심상이 시의 정서와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한다.
- ⑤ (가), (나)의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통해, 현대시의 상상력은 작자가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때 극대화됨을 유념하도록 한다.

35. (가), (나)의 문학사적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고전 시가 양식인 시조의 형식을 차용하여 시 양식의 측면에서 고전 문학의 형식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 ② (나)는 비유적 언어 사용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서술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야기 시의 본격적인 전개에 기여하였다.
- ③ (가), (나) 모두 지명을 통한 지역성과 향토성을 강조한 점에서 국토애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 ④ (가)는 현실 세계에 동화하는 시적 자아가 나타나지만, (나)는 현실 세계와 대립하는 시적 자아를 보여 줌으로써 모더니즘 시로서의 면모를 획득하였다.
- ⑤ (가)의 근대적 개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경향에 (나)의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담아내는 경향이 더해진 것은 이 시기 한국 시문학사의 변화 중의 하나이다.

36.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다음 시에 대한 감상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해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嬰兒)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

- ① 시의 형태에 주목해 볼 때, 1연은 첫 두 행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시간의 분절을 표현하는 동시에 3, 4행에서 공간을 초점화 하였다. 이는 작품에 긴장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 ② 작자의 생애에 비추어 볼 때, 이 작품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해방 후 월남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연의 극적인 상황 표현이 비극적 정조를 느끼게 한다.
- ③ 작품의 미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절제된 시어와 간결한 시행, 문장 부호의 독특한 사용을 통해 서사적인 내용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를 통해 감정을 응축하고 주제를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 ④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고립감과 죽음 의식이 작품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인식하고 절대적 세계에 대해 동경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⑤ 작품 간의 관련성에 주목해 볼 때, ‘수심’의 이미지는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에서도 사용된 표현이다. 김기림 시에서 ‘수심’은 새로운 세계의 실체를 비유하였지만, 이 시에서는 삶의 심연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다.

37. 대화 중심 시 수업을 위해 <보기>와 같이 교수·학습 절차를 계획하였다. ㉠~㉣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교수·학습 과정	
학습 목표	작품에 드러나는 표현 기법의 문학적 효과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활동 제재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교수·학습 과정	
시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과 원리 이해하기	1) 시에서 반어, 역설, 풍자 등 표현 기법에 대한 지식과 원리 이해하기 2) 대화 중심 시 읽기 방식에 대한 안내(교사)
시 낭송하기	1) 시의 정서와 분위기 파악하기 2) 낭독자의 목소리를 선택하여 시에 맞게 낭송하기 3) 시의 의미 예측하기 ㉠
[대화 1] 학생 개인의 내적 대화	1) 자신의 관점을 타당화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인용하기 ㉡ 2)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 반응 생성하기 3)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의 해석 선택하기
[대화 2] 학생과 학생들 간의 대화	1) [대화 1]의 3)에서 선택한 해석과 다른 독자의 해석을 비교하여 대화 나누기 ... ㉢ 2) 각 근거의 설득력을 비교하여 타당한 해석 판단하기
[대화 3] 교사와 학생의 대화	1) 그 동안의 대화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해석의 관점 제시하기(교사) 2) 교사가 제시한 해석 관점을 도입하여 [대화 2]에서 논의한 해석의 타당성을 성찰하기 ㉣ 3) 여러 관점 간의 경쟁적 대화를 통해 좀 더 근거 있는 해석의 가능성 설정하기
시의 의미 정리와 확대	1) 시의 표현이 지닌 문학적 효과 정리하기 2) 시의 표현을 활용한 개작, 모방 시 창작하기 ㉤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자료>에 나타난 문학적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자 료>—

프롤레타리아 소설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 있어서 전반 프롤레타리아 예술 운동의 당면 임무가 대중의 모든 마취제로부터 구출하여 그들의 의식을 양양, 결정케 함에 있음은 대중 소설의 규정에서 말한 바와 같다. 즉,

금일의 노동자와 농민의 예술적 요구 혹은 향락적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들을 봉건적·퇴영적 취미와 숙명론적 사상과 지배자에 대한 봉사의 정신과 노예근성과 몽환적 향락으로부터 구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자각하게 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며 ××× 인식을 배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사의 현 단계의 주인공의 임무를 다하도록 끌어올리고 결정케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야만 한다. (중략)

우리는 대중의 교양 정도의 차이에 의거하여 두 갈래의 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 예술 ‘확립’의 임무와 또는 ‘대중화’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프롤레타리아 예술 확립의 임무는 교양 정도에 있어서 대중의 상층에 속하는 학생, 각성 있는 프롤레타리아와 ××적 인텔리겐치아 등을 토대로 한 길로 나아감에서 수행할 것이요, 대중화의 임무는 교양 정도에 있어서 하층에 속하는 일반 농민, 노동자 등을 상대로 하여 나아감에서 수행할 것이다.

(중략)

그리하여 나는 소설에 있어서는 그 형식으로 1. 문장과 용어를 평이하게 하고, 2. 낭독에 편하게 하고, 3. 화려하게 하고, 4. 간결하게 하고, 5. 성격 묘사보다는 인물의 처한 경우를, 심리 묘사보다는 사건의 기록을 뚜렷하게 하고, 6. 객관적·현실적·구체적 방법으로써 구성하고 표현하라 하고서 현재 시장에 있는 이야기책과 한 모양으로 4호 활자로 인쇄하고 표지에 그림을 그리고 정가도 20~30전 하도록 하라 하였다. 요컨대 종래의 통속 소설, 가정 소설의 형식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 김기진, 『예술의 대중화에 대하여』(1929) -

- ① 대중 소설은 노동자, 농민의 계급의식과 미적 감수성에 부합해야 하므로, 창작 주체는 노동자, 농민 자신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② 필자가 이야기책 형식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그 형식을 도입하려고 한 것은 소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 ③ 노예근성으로 가득한 시대의 이념적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예술이 구시대의 윤리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④ 대중 소설론은 고전 소설의 전형적 인물 유형을 도입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하층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고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⑤ 필자는 노동자, 농민이 글을 읽지 못해 문학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브나로드 운동이 대중 예술론의 여러 전제 조건 중의 하나였음을 주장하였다.

[39~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로(雨露)를 막을 아무런 장비도 없는 무개화차 속에서 아무렇게나 내어팽개친 오뎅이 모양으로 가로 서기도 하고 모로 서기도 하고 혹은 팔을 끼고 엉거주춤 주저앉아서 서로 얼굴을 비비대고 줄다가는 매연에 전 남의 얼굴에다 진침을 지르르 흘려주기질과 차에 오를 때마다 떼밀고 잡아채고 곤두박질을 하면서 오는 짹새이다가도 하루아침 홀연히 오는 별리(別離)의 맛을 보지 않고는 한로(寒露)와 탄진(炭塵) 속에 건너 매어진 마음의 닻줄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알고 살기 힘든 듯하였다.

(중략)

지금껏 차 꼬리에 감추어 보이지 아니하였던 정거장 구내의 임시 사무소며 먼 씨그넬의 등들이 안계(眼界)에 들어오는 동시에, 또한 거지들의 거리마저 차차 멀리 떼어 놓으며 우리들의 차가 그 긴 모퉁이를 굽어 돌을 따라 지금껏 염두에 두어보지도 아니하였던 그 할머니 장막의 외로운 등불이 먼 내 눈앞에서 내 옷깃을 휘날리는 음산한 그믐밤 바람에 명멸(明滅)하였다. 그리고 그 명멸하는 희멸끔한 불빛 속에서 인생의 깊은 인정을 누누이 이야기하며 밤새도록 종지의 기름불을 줄이고 앉았던, 온 일생을 쇠정하게 늙어 온 할머니의 그 정갈한 얼굴이 크게 오버랩이 되어 내 눈앞을 가리어 마지아니하였다. 그 비길데 없이 따뜻한 큰 그림자에 가리어진 내 눈뿔아리들은 뜨거이 젖어들려 하였다. 그러고도 웬일인지를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간절한 느껴움들이 자꾸 가슴 깊이 남으려고만 하여서 나는 두 발뒤꿈치를 돌돌 대로 돌우고 모자를 벗어 들고 서서 황량한 폐허 위 오직 제 힘뿐을 빌려 퍼덕이는 한 점 그 먼 불그늘을 향하여 한없이 한없이 내 손들을 내저었다.

(나)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덩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린하겠나.”

“훤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 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짹 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공로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뻗어진 양치물은 귀퀴한 냄새와 더 붙어 백절 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 소위의 얼굴 정통에 가 좌르르.

“유 데블!”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 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향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짹씩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컹,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39. 작품 전체를 고려할 때, (가), (나)의 서사적 특징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만연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상(事象)과 당대 인물들의 복잡다단한 삶의 모습을 관찰자적 시각으로 그려 내었다.
- ② (가)의 서술자는 ‘할머니’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두어서 인물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풍자와 아이러니를 활용하여 당대 현실의 혼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작중 인물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권력 지향적 인간 군상의 세태를 그려 내고 있다.
- ⑤ (가), (나)는 비판적인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대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40. (가), (나)의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소설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 시기 계몽주의 『별을 켜다』는 귀환의 과정에서 의지할 곳조차 없는 귀환 동포들이 겪게 되는 가난한 생활상을 그려 내고 있다.
- ② 이 시기에는 이태준의 『해방 전후』와 같이 도시 노동자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낙관적 전망을 그린 노동 소설이 창작되었다.
- ③ 이 시기에 염상섭은 좌우 이념의 대립과 정치의식의 과잉 표출에 환멸을 느껴 『두 파산』과 같은 복고적 취향의 대하 역사 소설을 창작하였다.
- ④ 이 시기 황순원의 『목숨이 마을의 개』에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작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기 검열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이 시기에 김동리는 주지주의를 바탕으로 순수 문학과 민족 문학론의 이론적 대립 구도 속에서 논쟁하는 가운데 비평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